



### 부안군 농촌활력과, 농촌일손돕기 구슬땀

부안군 농촌활력(과장 이창학)에서는 4일 삼서면 양파 재배농가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양파 수확 일손 돕기에 나섰다.

특히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자 실시했다.

농가 노모씨는 "올해 초 냉해피해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수확기에 공무원들이 힘을 보태줘 한시름 덜었다"며 고마워했다.

한편 농촌활력과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ESG 상생협력체계 구축으로 농촌활력을 제고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농촌 인프라 개선 사업에 주력하는 한편 부안형 푸드플랜의 안정적 구축을 통한 먹거리 순환체계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이커머스 플랫폼 활성화로 온·오프라인 유통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며 농업인들과 지역주민들의 발전을 위한 동반성장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남원시 보절면, 폐의약품 분리수거 당부

남원시 보절면은 최근 30개소 마을회관에 폐의약품 수거를 설치하며, 면장이 각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폐의약품 분리수거를 당부하였다.

최근 고령층의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하면서 폐의약품 처리에 대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일부 어르신들이 폐의약품을 가정 내에 방치하거나 일반쓰레기로 배출하는 경우가 발생. 이는 약품 오염과 환경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마을회관 폐의약품은 분기별로 보절면행정복지센터서 수거하여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보관하였다가 시 환경과에서 상·하반기별로 수거해 갈 계획이다.

양재우 보절면장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및 수거로 환경오염 예방을 지속 추진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김제시, '제29회 환경의 날' 모악산마실길 정화활동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제29회 환경의 날을 맞아 4일 청소자원과 직원과 자연보호협의회, 그린리더 회원들과 함께 모악산 마실길 정화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70여명이 참석했으며, 모악산마실길 1코스 금산사 배재 구간 1.7km에 버려진 각종 영농폐기물, 일반쓰레기 등 약 500L의 폐기물을 수거했다.

'환경의 날'은 지난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6월 5일'을 기념일로 제정한 이래 세계 각지에서 이날을 기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환경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 보전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앞으로도 그린리더, 자연보호협의회 등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김제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정읍시·가족센터, 부부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목한 가정은 시민 화합과 정읍 발전의 첫걸음입니다." 정읍시와 정읍시가족센터가 지역 내 중년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정서 조절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는 자녀 양육과 부부 갈등으로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중년 부부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부부들은 지난 삶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며 가정 내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부부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익혔다.

참석자들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감정을 되돌아보고 배우자와 입장을 바꿔 고민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프로그램에서 접한 여러 방법과 자제를 실제 생활에 응용해서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시의 가족센터는 이외에도 가족상담과 사례관리, 긴급 위기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양 기관은 "시민의 가족 건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가족상담서비스 등 서비스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정읍시가족센터(중앙길 22) ☎063.531.0309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 “이동노동자 여러분!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 전북자치도-노동권익센터, 이동노동자 온열질환 예방 위해 생수 등 후원물품 나눔 행사

전북자치도가 이동노동자들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히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센터장 정광수)는 4일 전주 신시가지 비보아방장에서 전북지역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생수 나눔 행사는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이동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시 등 노동 관계기관·단체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개최해 왔다.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여름철에는 직사광선 등에 노출되면서 온열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행사는 4일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3시에 진행됐으며, 전북근로자건강센터의 이동노동자 대상 건강검진 및 상담이 병행했다.

이번 나눔에 제공된 생수 1만병과 쿨쿨토시는 전북특별자치도보건사회위원회(회장 김학수), 전북노무사회(회장 신용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우아를 지부장)이 기부했다. /이만호 기자



부금으로 마련됐다.

이동노동자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배려 촉구하며 마무리했다.

문성철 전북특별자치도 일자리인생경제과장은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밤낮없이 고생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생수 나눔 행사가 단순히 행사가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정책적 고민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교도소 나눔미 장학회, 25명에 장학금 전달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설립한 나눔미 장학회가 지난달 29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5명에게 장학금 총 1250만원을 전달했다고 이날 4일 밝혔다.

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은 "장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 장학 사업을 더욱 확대하는 등 나눔을 실천 수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눔미 장학회는 2008년 초대 회장 안종희 교도관과 뜻을 같이하는 직원들이 급여에서 일정액을 모금하여 형편이 어려운 지역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현재 280여 명의 교도관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올해까지 237명의 학생에게 1억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내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주교도소, 호국보훈의 달 맞아 임실호국원 참배

전주교도소(소장 안영삼)는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이날 참배는 안영삼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하여 국가유공자를 가족으로 둔 직원 9명이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헌화와 분향을 하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넋을 기렸다.

전주교도소에서는 매년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나라사랑을 위하여 헌신하신 애국선열들을 기리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영삼 소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기릴 수 있도록 교도관들은 더욱 노력 하겠으며, 무엇보다 전주교도소 직원들은 한 마음 한뜻으로 엄정한 수용관리를 따뜻한 마음으로 수용자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남원 운봉읍, 타이머 콕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운봉읍은 독거노인, 치매 환자 가구 등 화재에 취약한 33가구의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타이머 콕 무료 보급'을 추진해 가스 사용 부주의에 따른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 육구에 부응하고, 주민동력 강화 및 지역사회 유성을 위해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 직원, 마을 이장, 자원봉사자들이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해 타이머 콕을 설치해 주었다.

한 어르신은, "타이머 콕을 구매하거나 설치하는 방법도 몰랐는데 봉사자들이 집까지 직접 와서 설치해 주니 너무 기쁘고, 무척이나 마음이 놓인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진안군, 우수 치매안심마을 인증 운영위원회 개최

진안군치매안심센터는 4일 치매안심마을 제1호 '월강정, 제2호 '원당양' 마을을 우수 치매안심마을로 양성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마령면행정복지센터와 진안읍행정복지센터에서 각각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치매파트너 교육을 진행했다.

운영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장, 읍·면장, 파출소장, 맞춤형복지팀장, 이장, 노인회장 등을 중심으로 구성했으며 이들은 치매안심마을의 기획, 운영, 성과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치매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안심마을 내 치매안심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할 리더로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2024년 미래 행복 장수과학체험마당' 운영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지난 1일 장수한누리전당 산내관에서 '2024년 미래 행복 장수과학체험마당'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명이 참여했다.

과학체험마당은 전북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주최하고, 장수교육청이 주관, 장수산골STEAM연구회가 함께 운영하며 미래 사회를 살아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융합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AR VR, 3D프린터, 로봇 등 미래 과학 체험뿐만 아니라 과학 미술공예, 미니 드론 조립, 드론 축구 체험장 등 과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추영곤 교육장은 "내실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에 참여해 주신 장수산골STEAM연구회 선생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감사하며, 부스 운영에 참여해 주신 장수소방서와 대한드론축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이와 더불어 "장수지역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이루고,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장수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지원청도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 남원도시지원센터, '골목주민 숨씨자랑' 개최

남원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최근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의 일원인 골목주민 숨씨자랑'을 금동 14동 일원에서 열었다.

골목주민 숨씨자랑은 노후주거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향후 조성 예정인 도랑마을 활력센터에서 운영되는 반찬가게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음식 솜씨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금동 도랑마을 주민들 50여 명이 참가하여 음식 솜씨 경연, 문화공연, 체험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 지역대표 먹거리 개발 역량강화 교육 수강생들이 음식 솜씨를 뽐내는 주민 먹거리 솜씨 경연 대회와 천연 손세정제 만들기(남원시문화재단 도시재생대학 천연비누 강사자격증 수료생으로 이루어진 '담다' 팀) 체험, 양말목 만들기 체험 등 부스가 운영되었다.

또한, 남원시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팀에서 혈압·혈



압 측정, 남원시 국악놀이 예술단의 난타 공연과 남원시민 예술단의 문화공연은 행사 참여에 도움을 주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이러한 모든 공연과 체험은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통해 이루어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유영욱 건축무한 대표이사, 순창군에 고향사랑 기탁

순창군은 4일 (주)건축사사무소 건축무한의 유영욱 대표이사에게 고향사랑기부금 개인 최고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유영욱 대표이사는 순창 출신 기업인으로 2021년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대상에 빛나는 전주 새울 유치원을 설계했다. 또한 유 대표이사는 2021년 JTJ 전주방송과 전북은행이 주최한 희망나눔 어워드에 5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한 바 있다.

유 대표이사는 "내 고향 순창의 발전을 기원하며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면서 "순창 출신 기업인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순창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을 기억해 주시고 고향사랑기부에 동참해 주신 유영욱 대표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농기센터, 요천에 쏘가리 치어 방류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지난 3일 남원을 대표하는 하천인 요천에 쏘가리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치어는 남원시 관내 양식장에서 생산된 우량한 종자로 전북특별자치도 수산기술연구소에서 전염병검사를 거친 전장 3cm 이상의 쏘가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쏘가리는 농어과의 육식성 민물고기지만 맛이 돼지고기처럼 좋다고 하여 수둔(水豚)이라 불리기도 하며 '맛있어 라는 별칭도 있을 만큼 식감이 좋고 담백해 민물의 제왕'으로 불렸으며, 이런 인기 때문에 한때 멸종위기를 맞았으나 지속적인 치어 방류로 점점 복원되고 있는 종으로 전북지역에서는 4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금어기며, 18cm 이하의 어린 고기를 잡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